

고려회화의 사실주의적경향

김 미 진

1. 서론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남달리 일찌기 문명의 길에 들어선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민족회화를 창조하여 동방미술을 꽃피워왔다.

오랜 역사적기간에 창조된 회화미술의 재부들은 다 일정한 역사적시대의 산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민들의 생활과 미감, 정서를 훌륭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민족미술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회화는 선, 색채, 명암과 같은 표현수단에 의한 조형적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그려내는 미술의 한 분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시기에 와서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는 더욱 발전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6권 212페이지)

고려시기에 회화미술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투쟁과 재능에 의하여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

고려시기에 회화가 발전할수 있었던것은 국토통일이 실현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인민들속에서 문화적정서가 한층 높아진데 있었다.

지난 시기 고려의 회화미술에 대해서는 《조선단대사》와 《조선회화사》 1 등에서 간단하게 발표되였다. 그러나 고려시기에 사실주의적경향의 그림이 나오게 된 사회력사적환경과 그 주제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서는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도 거의나 언급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려시기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그림들과 기록으로만 전해지고있는 그림자료들을 가지고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여온 사실주의미술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양양되던 역사적시기마다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한단계한단계 발전하여왔다는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2. 본론

2. 1. 고려회화발전의 사회력사적환경

고려시기 회화미술은 형태에 따라 일반감상회화, 기념비회화, 장식화, 출판화 등으로 구분되였다.

일반감상회화에는 인물주제화와 자연화(풍경화, 동물화, 정물화 등이 포함)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대체로 족자나 병풍형식으로 되어있었다

고려에서 회화가 발전할수 있었던 사회력사적환경은 우선 전문적인 회화창작기관인

도화원이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된데 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고려시기의 전문적인 회화창작기관인 도화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하는것은 많지 못하다.

그러나 일부 문헌자료들을 통하여 고려시기에 회화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기관이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활발히 운영되었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전문적인 회화창작기관으로서 도화원이 있었다.

고려에 도화원이 있었다는것은 《고려사》에 《명종 8년(1178년)에 관제를 다시 정하였다. 서경에 대부, 소부, 진설사, 룡라점, 도화원을 속하게 하였다.》(《고려사》 권77 백관2 외직)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다.

주목되는것은 기록에 있는것처럼 도화원이 12세기 후반기(1178년)에 와서야 설치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1178년이전에도 도화원이 있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자료에서 1178년에 관제를 《다시 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미전에 있던 관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것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리녕이 궁중화가로서 도화원을 책임진 화가였다는 자료도 1178년이전에 도화원이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를 주고있다.

리녕은 인종(1123-1146)통치기간에 활동한 궁중화가로서 《고려사》 렬전에 올라있는 유일한 화가이다.

궁중화가는 대체로 전문미술창작기관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 선발되어 들어가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는데 리녕이 전문미술기관에서 창작생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궁중화가로 들어올수는 없는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에서 도화원이 12세기 후반기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봉건국가의 전문미술창작기관인 도화원이 오래동안 존재해있었으며 그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고려에서 회화가 발전할수 있었던 사회력사적환경은 또한 높은 기량을 소유한 진보적이며 재능있는 화가들의 창작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데 있다.

이 시기에 진보적인 화가들은 비현실적인 종교화창작만을 강요하는 봉건통치배들의 강압속에서도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민족회화의 고유한 화법들을 더욱 살리고 예술적형상수준을 높이는데로 창작활동을 벌리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화가가 12세기에 활동한 리녕이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리녕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 이름을 날렸는데 인종통치시기에 송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화가들에게 그림그리는 법을 배워주었다고 한다.

리녕이 송나라에 가서 이름을 떨친것은 그가 그림을 생동하면서도 사실주의적으로 잘 그렸기때문이었다.

고려시기 화가들의 창작활동이 적극화되었다는것은 《근역서화징》에 《화국 박자운을 시켜 〈2상귀휴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것을 조정과 가정들에 걸어두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고려봉건국가는 박자운을 시켜 《2상귀휴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조정과 가정(봉건통치배들의 집으로 추측됨.)에 걸어두게 하였는데 이 많은 그림들을 박자운 혼자서 그릴수는 없다고 본다. 아마도 그는 도화원을 책임진 화가였던것으로 하여 봉건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그림들을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렸다고 보아진다. 《근역서화징》 권2 러대편 박자운)

고려시기 화가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회화에서 진채세화가 적극 활용되었는데 이것은 회화의 사실주의적효과성을 한층 높여주었다.

진채세화(眞彩細畵)란 정교한 붓질로 진하게 색을 칠하는 조선화색묘법의 하나이다. 진채세화는 채색순차와 방법에 따라 그 양식을 달리하는데 기본은 색피우기와 고루칠하기(평도법)를 배합하면서 점차 농담을 진하게 하고 예리한 붓질로 질감을 생동하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고려시기에 인물주제화나 자연화를 비롯한 여러 주제의 그림들에서는 선들이 보다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되고 본색을 위주로 통일시키고 간결하면서도 맑고 선명한 색깔로 되어있다.

현재 남아있는 경호(공민)왕의 《천산대렵도》(《천산에서 사냥》)나 고연희의 《산수도》에서 찾아볼수 있듯이 배경을 록색과 같은 무채있는 어두운색으로 칠하여 묘사대상의 중심을 강조하고 배경과 바깥부분은 어둡게, 얼굴가까이는 연하게 하여 공간감을 주면서도 세부묘사에서 채색과 농담으로 립체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묘사기법은 고려화가들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창조된것으로서 회화의 사실주의적면모를 나타내게 하는데서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다.

고려에서 화가들의 창작활동이 적극화된것은 고려에서 창조된 상감청자의 다양한 문양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고려시기 상감청자의 문양은 대부분 자연풍경을 묘사하고있는데 이러한 도안들이 나타나게 된것은 실용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상감청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것과 관련되어있다. 이와 함께 청자기에 반영할 다양한 회화적소재들을 높은 수준에서 창작하기 위한 재능있고 진보적인 화가들의 활동이 강화된 결과물이었다고도 볼수 있다.

고려에서 회화가 발전할수 있었던 사회력사적환경은 또한 회화창작을 위한 물질적수단들이 상당히 발전한데 있다.

고려에서는 인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생산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수공업생산이 증대되었는데 이 시기에 질 좋은 종이와 색감, 먹, 붓 등이 많이 생산되어 그림창작에 널리 리용되었다.

고려에서 종이는 지방의 수공업전문생산자인 지소(고려시기에 종이를 만들어 봉건국가에 바치는 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행정구역단위)에서 주로 생산하였다. 《고려사》식화지 공부조에는 수공업제품을 만드는 지역으로서 지소와 목(먹)소가 동소, 철소 등과 함께 잡소로 존재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지소나 목소에서 그 질이 상당히 높은 종이와 먹이 생산되었는데 고려의 백추지는 닥나무로 만든 종이로서 희고 매끈하여 그림그리기에 적합하였다.

이 종이 가 얼마나 유명하였던지 당시 송나라에서는 《고려닥종이는 빛이 희고 애착심이 솟구치는데 백추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질이 높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이뿐만아니라 고려에서는 그림그리기에 적합한 여러가지 종이들도 많이 생산되었는데 당시 송나라에서 중시한 종이는 얇은 종이로서 징심당지였고 두터운 종이로서 견지였다. 특히 견지는 종이색깔이 마치도 비단과 같았고 질기여 글을 쓸 때에는 먹이 잘 피여들어 간것으로 하여 송나라에는 없는 희귀한 물건으로 되어있었다.

고려에서는 회화창작에 필요한 색감도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송나라의 이름난 평론가인 박야허가 《도화견문지》에서 고려화가들이 창조한 채색기법에 대하여 《고려의 회화는 색이 독특하다.》라고 특별히 강조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확약허가 이러한 평가를 한것은 고려의 회화작품들이 조선화의 색감재료로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예로부터 조선화의 색감재료로는 광물성, 식물성으로 된 투명안료와 종이에 스며들지 않는 불투명안료로 구분되어 발전하여왔으며 이러한 안료들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색빠기가 높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에서 회화창작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이 상당히 발전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동시에 사실주의적경향을 담은 그림들을 창작할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마련되어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2. 2. 고려회화발전에서 나타난 사실주의적경향

고려시기에 회화분야에서는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그림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고려시기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그림들은 주로 인물주제화와 자연화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 회화미술에서 사실주의적경향은 이미전에 고구려무덤벽화들에 그려진 인물들의 형상에서 일정하게 나타나있다. 실례로 고국원왕릉과 감신무덤, 덕흥리무덤, 쌍기둥무덤 등의 벽화에 그려진 주인공들의 모습이 생동하게 묘사되어있는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 반영된 이러한 인물형상에서의 사실주의적경향은 고려시기에 와서 그 주제와 형식에서 한층 폭넓게 발전하였다.

고려시기 회화에서의 사실주의적경향은 첫째로, 실재한 사실들을 소재로 한 인물주제화들이 창작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려시기 인물주제화는 봉건통치배들의 강요로 저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미화분식하는데로 지향되면서 일정한 사건이나 생활을 기록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묘사의 섬세성과 정교성은 얼굴심리묘사보다도 많은 경우 인물들의 행동과 옷차림, 생활환경을 보여주는데만 치중되었다.

고려시기의 인물주제화에는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적지 않은 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과 사회적불평등 그리고 양반지배계급의 허례허식적인 안일한 생활이 사실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우선 기록으로 전하는 인물주제화들가운데서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작품들이 적지 않다.

옛 기록으로 전해지는 인물주제화로서는 《홍산전투도》, 《해동기로도》, 《쌍마도》 등을 들수 있다. 《홍산전투도》는 고려시기의 애국적인물인 최영의 휘하에 있던 화가가 14세기 말에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던 왜구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린 작품이다.

1350년부터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왜구(일본해적)는 한해에도 여러차례 조선 동해, 조선남해, 조선서해의 해안일대에 침습함으로써 그 피해가 날로 우심하여졌다.

1376년 7월에 전라도 랑산과 풍제에 련이어 왜구의 무리가 나타나자 고려봉건정부는 충청도일대에서 왜구를 쳐부실 대책을 세워 6도도통사 최영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개경(개성)으로부터 홍산(현재 충청남도 부여군)을 향하여 출전하게 하였다. 고려군이 홍산에서 적들을 격멸하는 공격으로 넘어갈 때 최영장군은 대오의 앞장에 서서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이때 왜적 한놈이 숲속에 숨었다가 최영장군을 쏘아 그의 입술을 맞혔다. 그는 류혈이 랑자하였으나 낫색 하나 변하지 않고 활을 당겨 왜병을 소멸하였다. 그런 후에야 박힌 화살을 뽑고 전투지휘를 더욱 용감히 하였다. 총지휘관의 희생적인 투쟁에 고무된 고려군은 용기백배하여 싸웠으며 이 전투에서 왜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그 대

부분을 살상포로하였다.

작품에는 홍산전투에서 발휘한 고려의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이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형상되어있었다. 최영의 휘하에 있던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고려시기 전투기록화로서의 사실주의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그후 조선봉건왕조 시기의 전투기록화창작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해동기로도》는 량반들의 부패한 생활을 잘 보여준 작품의 하나이다.

기록에 의하면 12세기말에 화가 리기는 《해동기로도》에서 늙은 선비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기지개도 하고 뒤로 벌렁 눕는 모습을 실감있게 형상함으로써 《성인》으로 자처하는 기로회성원들의 타락한 생활을 조소폭로하였다.(《조선단대사》 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1(2012)년 207페이지)

리규보는 시 《쌍마도》에서 금은안장과 황금굴레로 장식한 룡마는 잘 달리는데 베적삼을 입은 아이에 의하여 끌려가는 수레끄는 말은 머리를 수그리고 풀밭을 걷논질하며 입맛을 다실뿐이라고 읊었다. 이것은 그림이 봉건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불평등을 형상한 것이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가운데서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그림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작품으로서는 경효(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와 리제현이 그린 《대렵도》 등을 들수 있다.

《천산대렵도》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일부만이 남아있지만 사냥군이 말을 타고 달리며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이 잘 안겨오고있다.

작품은 고구려의 약수리벽화무덤의 사냥장면에서와 같이 달리는 말에서 화살을 겨누고있는 인물의 묘사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그려냈다.

리제현이 그린 《대렵도》는 《천산대렵도》와 달리 말을 타고 달리는 여러명의 인물들을 원경, 중경에서 취급함으로써 자기의 특색을 나타낸 작품이다. 화면에 보이는 들판은 끝없이 펼쳐졌으며 화면윗부분에는 근경의 대상으로 되는 소나무가 그려져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자연속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짐승을 잡는 사냥군들의 모습을 매우 여유있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이처럼 기록으로 전하는 인물주제화들이나 현존하는 인물주제화들은 봉건사회의 제약속에서도 사회현실적문제들을 소재로 하여 펼쳐놓은것으로 하여 회화의 사실주의적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고려시기 회화미술에서 묘사대상에 대한 사실주의적경향이 얼마나 뚜렷한가 하는것은 11세기 송나라의 이름있는 화가이며 평론가인 팍야허가 1070년에 쓴 《도화견문지》라는 책에서 《회화의 정묘함은 고려의 고유한것이다.》라고 강조한것을 통해서도 더 잘 입증할수 있다. 팍야허가 평가한것처럼 고려에서는 묘사대상이 정묘하고 채색으로 장식된 수많은 인물주제화들이 창작되어 회화의 사실주의적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고려시기 회화에서의 사실주의적경향은 둘째로, 공신들의 화상이 실재한 인물들에게 기초하여 창작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시기 《공신》화상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는데 이러한 화상들은 왕이 《충신》들에게 주는 일종의 표창이었다.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로 하여금 《충신》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건물들(공신각, 공신당)과 사당들의 벽에 직접 그리거나 그려붙이기도 하였다.

고려에서는 공신화상을 잘 그려 이름을 남긴 화가들이 많은데 리광필(리녕의 아들)과 리기, 정광필, 정홍진 그리고 경효(공민)왕 등을 들수 있다.

리광필은 12세기(명종시기)에 문하시중을 지낸 두경승의 화상화를 그렸다. 기록에 의

하면 리광필이 두경승의 화상을 그릴 때 그의 반신상을 그렸는데 두경승이 화를 내면서 자기의 모습을 국왕과 같이 전신상으로 그리게 하였다고 한다.《고려사》권100 려전 13 두경승)

우의 사실을 통하여 당시 공신들의 모습은 대체로 반신상으로 그렸고 왕의 화상은 전신으로 그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경승이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리광필에게 자기의 모습을 전신상으로 그리도록 한 것은 무신집권시기 무신들의 전횡과 독단이 어떠하였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신상과 반신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화상화들이 생동하게 형상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시기 화상가운데는 현존하는 작품도 있는데 그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강민첨화상》을 들 수 있다. 화상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788년에 박춘빈이 모사한 것이지만 지난 중세시기 화상모사에서 철저히 원화에 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화상은 고려시기 화상화의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데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길이 80cm, 너비 61.3cm의 비단천에 채색으로 그린 화상의 주인공 강민첨은 11세기에 있는 거란침략자들과의 전투뿐 아니라 동녀진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전투에서도 위훈을 떨친 장군이었다. 하기에 봉건정부는 그가 사망(1021년)한지도 20여년이 지난 1049년에 공신각에 화상을 붙이여 후대들에게 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려지고 전해진 《강민첨화상》은 공신화상의 규범에 따라 관복차림의 반신상으로 묘사되어 있고 얼굴 옷부분공간에 그의 래력과 공적 등을 보여주는 글이 씌워져 있다.

《안향화상》은 우리 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인 안향(1243-1306년)을 그린 것인데 역시 반신상형식으로 그린 것으로서 다른 공신화상과 류사하다. 그러나 이 화상은 《강민첨화상》에 비하여 높은 예술적 품격을 나타내고 있다.

고려시기에는 승려들의 화상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그림으로서는 《라옹화상》을 들 수 있다.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은 너비 90cm, 길이 130cm의 크기를 가진 비단에 채색으로 그린 것으로서 14세기 중엽에 경효(공민)왕의 고문이었던 라옹을 요란하게 꾸민 의자우에 앉은 모습으로 형상하였다.

《라옹화상》의 조형적형상에서 사실주의적인 경향은 인체의 비례관계와 세부형태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색의 농담변화에 의한 립체감표현과 등반이의 바탕색과 얼굴색의 대조관계를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중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고려시기 회화에서의 사실주의적 경향은 셋째로, 조국의 자연경치를 사실 그대로 생동하게 그려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고려의 회화분야에서 종전에 많이 그려지던 고루한 화풍에서 벗어나 실재하는 우리 나라의 명산을 보여주는 실경산수화가 많이 창작되었다.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란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직접 묘사한 산수화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12세기 리녕의 풍경화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하나의 화풍으로 확고히 화단에 등장한 것은 18세기였다.

그것은 우선 우리 나라의 자연경치와 풍경을 사실 그대로 그려낸 데서 나타났다.

대표작으로 10세기말~11세기초에 활동한 전공지(?-1014년)가 1007년에 제주도에서 화산이 분출할 때 배를 타고 섬가까이에까지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린 《제주도의 화산분출》과 12세기에 리녕이 송나라왕 휘종의 요구로 그린 《례성강도》, 고려의 수도 개경 동문밖 천주사의 풍경을 그려준 《천주사남문도》, 윤평이 12폭병풍에 사계절의 산

천경치를 그린 《사계절》, 고연휘가 비단천에 채색으로 그린 《산수도》 등을 들 수 있다.

《천주사남문도》와 《례성강도》는 현재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그 면모를 잘 알 수 없지만 문헌기록자료들을 통해서 그 생동성을 엿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국왕 인종이 송나라상인이 가지고와서 받친 그림을 리녕에게 보여 주자 그것을 보고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올시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인종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림 뒤등의 배접을 뜯으니 과연 거기에 리녕의 이름이 써여있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천주사남문도》였다. 그리고 《례성강도》는 1124년에 리녕이 송나라왕의 간청에 못이겨 그려준 것이었다고 한다. 이 그림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례성강의 자연풍치를 생동한 사실주의적풍경으로 훌륭하게 묘사한 것이었다.

리녕이 그림을 얼마나 생동하고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던지 송나라왕 휘종이 《근래에 고려의 화공으로서 사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묘수(뛰어난 재간을 가진 사람)를 가진 사람은 오직 리녕뿐이다.》라고 하면서 술과 음식, 각종 비단을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은 그림 《례성강도》의 우아함을 잘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그림은 송나라사람들의 커다란 탄복을 불러일으켰는데 자존심이 강한 휘종도 많은 선물을 주면서 그 화법을 자기 나라 궁전화가들에게 배워줄 것을 부탁하였다.

고려시기에 창작된 풍경화가운데서 현존하는 작품으로서는 고연휘가 그린 《산수도》(2폭)를 들 수 있다. 일본 교토의 금지원(金地院)에 고연휘가 그린 것으로 전하는 《동경산수도》(冬景山水圖)와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2폭이 소장되어 있다.

비단에 채색으로 그린 이 그림은 안개속에서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보이는 웅장한 산천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근경에 묘사된 키낮은 나무들과 야산들, 중경을 차지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안개, 원경의 우중충 높이 솟은 산발들과 그사이의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개울과 수직으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 등 묘사된 자연환경은 산천의 웅장성과 대기의 청신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반영된 대상들은 산을 둥글둥글하게 묘사하고 안개도 부드럽게 처리한 것으로 하여 화면전반이 서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사실주의적풍경화로서의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자라는 소나무 등이 주요묘사대상으로 생동하게 그려진 데서도 나타났다.

이 시기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의 상징으로 되면서 화가들속에서 즐겨 그린 대상이었는데 한그루의 소나무그림도 있지만 하나의 숲을 이루고 억센 기상이 넘쳐 흐르게 그려진 소나무들도 적지 않다.

화가들이 소나무그림을 특별한 지위에 놓은 것은 고려사람들이 수도 개경을 송도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를 각별히 사랑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고려시기 소나무의 모습은 리규보가 자기의 시 《술을 그린 병풍을 두고》에서 노래한 것처럼 《...검은 뱀 같길 못 정해 꾸물거리는 듯 ...고래며 구렁이 서로 ...엇켜있는 듯 그늘 낀 날에 번개치며 ...나는 듯》이 줄기는 우불구불하지만 억센 기상이 넘치는 로송으로 형상한 것도 있었으며 해아가 그린 《세한삼우도》에서와 같이 우불구불한 줄기와 가지의 모습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펼쳐진 싱싱한 푸른 잎을 기본으로 한 것도 있었다.

《세한삼우도》는 소나무를 한가운데에 놓고 주변에 자그마한 매화와 참대를 묘사한 그림이다. 《세한삼우도》(歲寒三友圖)는 현재 일본 묘만사(妙満寺)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의 《고화비고》의 조선서화전에 그의 이름과 작품이 소개되어 있고 해아가 고려말기의 화가로 기록되어 있다.

《세한삼우도》는 추운 겨울의 세친구라는 뜻으로서 소나무, 참대, 매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작품의 구성은 화면가운데 두 그루의 키가 큰 소나무가 가지를 드리우고 서있고 우측 아래에는 介자형의 대어섯잎을 가진 성긴 참대가 있고 좌측 아래에는 매화가 있다. 이들 세 나무는 하단에 비스듬한 땅과 바위사이에서 꼳꼳하게 우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려졌다.((근역서화징》권2 러대편 해애)

그림에서는 당시에 인민들속에서 매화나 참대에 비하여 소나무가 비할바없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왔음을 직관적으로 생동히 보여주고있다.

고려시기에 전나무도 즐겨 그려진 묘사대상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소나무를 형으로 전나무는 동생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된것이였다.

고려에서는 이와 같이 자연경치와 그속에 있는 대상들을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회화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이처럼 고려회화의 사실주의적경향은 인물주제화와 자연화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 사실주의그림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3. 결 론

다양한 주제의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그림들이 고려에서 나오게 된것은 고려의 회화발전에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였다.

물론 고려시기에 이러한 그림들은 고려후반기에 화단에서 발생한 사대주의적인 문인화와 투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12세기 후반기에 발생한 문인화는 민족회화의 사실주의적발전을 극력 억제하였다. 문인화는 4군자(참대, 란초, 매화, 국화)를 소재로 한 먹그림으로서 왕에 대한 량반문인들의 봉건적충군사상을 반영한것이였다.

이러한 미학관은 12세기 의종때 동래지방에 류배되어있던 문관인 정서가 《한가한 여가에 붓을 들어 아름다운 필치로 그림을 그려 벽우에 붙여보니 그윽한 마음 끝이 없어라.》라고 한 말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진보적인 화가들에 의하여 사대주의적이며 이색적인 문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화의 사실주의적그림을 발전시켜나가려는 기풍이 계속 이어져갔다.

그것은 12세기에 풍경화에서 사실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된데서와 13~14세기말에 화단에 문인화의 풍조가 만연되자 도자공예와 금속공예를 비롯한 미술의 여러 분야에서 문양의 소재들에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새겨놓은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고려시기에 창작된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그림들은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봉건통치들의 악정과 사회계급관계를 폭로하는 반봉건적주제의 그림들이 창작되지 못하고 기법에서도 원근감과 명암법을 적절히 배합하지 못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창작된 사실주의적경향을 가진 그림들에는 조선화의 여러가지 기법과 수법들이 스며든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회화발전에서 자기 몫을 뚜렷이 차지하고있다.

실마리어 인물주제화, 자연화, 리닝

저자는 중국연변대학 미술학원 교원임.